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1064호 현대불교 29
2015년 10월 1일 (8월 19일) 목요일 / 불기 2559년

일체와 더불어 돌아닌 도리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무의 공법이 어떤 단계인지요

질문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스님 법문 중에 무의 공법이라는 말씀이 있던데 그것이 어떤 단계인지요.

답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돼서 인간까지 왔으니만큼, 이 인간 중에서도 진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한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주장자의 자리를 완벽하게 해 놔야 된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보림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수억겁을 통해서 겪어 온 관습이나 욕심이나 아상, 아만 이런 모든 거, '딴 사람은 죽어도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잡아먹는 거, '딴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 하고 정신을 뺏어 먹는 것, 이런 행위를 함이 없이, 돌아닌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돌아닌 도리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이제 어지간히 좀 알았다고 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껏 질문 한 번도 해 본 예가 없죠, 네? 그게 여러분이 완속 되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씹이 나서 너풀거리야 바람이 부는 소리도 듣고, 흙냄새도 맡고, 거름 주는 것도 알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람이 분다 하면 뿌리를 좀 널 때 팔레 잡는 다거나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알고 이런 식물이라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만큼 일체 만물 만생과 더불어 돌아닌 도리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나부터 알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의식과 그 모두가 내 주인공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어라. 진짜 믿는다면 한국에서 그 선장이 중생들을 이끌고 다 조복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돌아닌게 조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두가 항상 그렇게 한국에서 들고 나는 거지 여러 군데서 들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아니고 내 이 한마음에서 들고 나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반가워서 악수를 할 때 마음이 먼저 잡니까, 손이 먼저 잡니까? 마음이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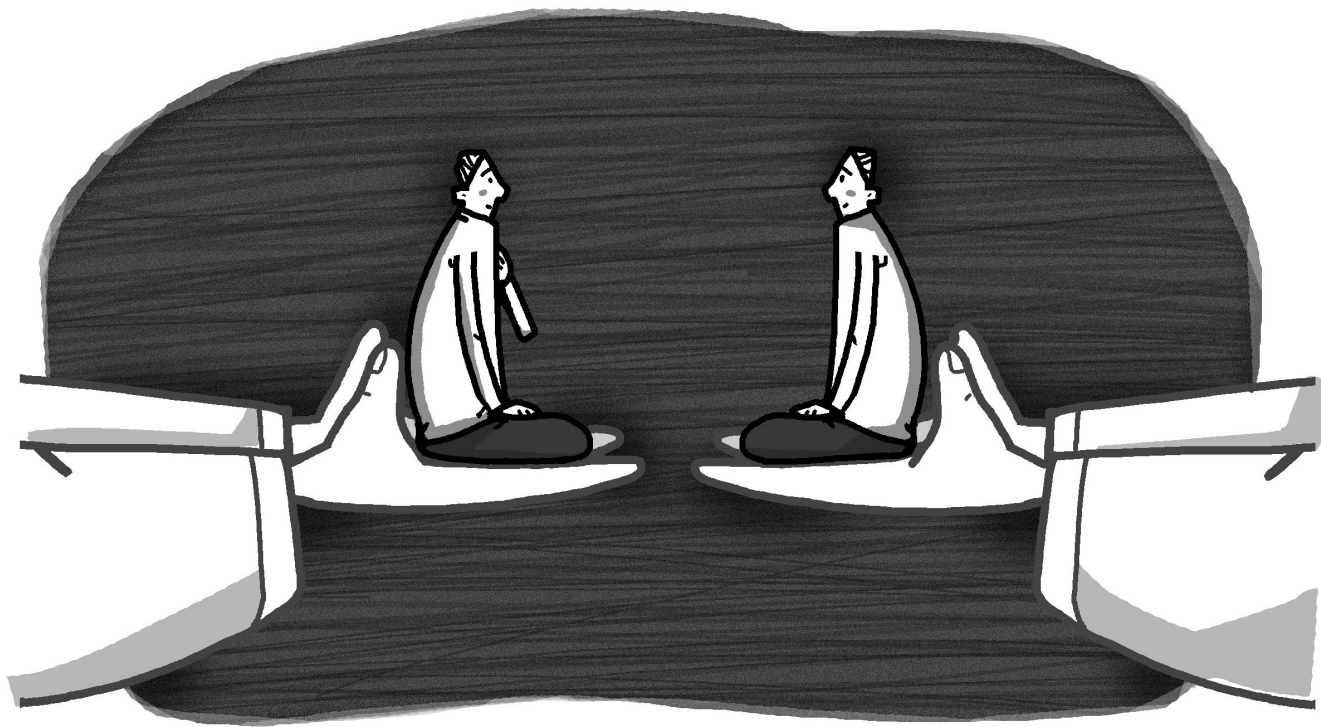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고 안 가고 간에 마음이 일어나니까 손이 가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운 사람이라면 반갑게 마음이 내어지고, 또 '그냥 인사를 해야겠다.' 하더라도 인사하기 위해서 손이 갑니다. 그게 뭐 정확합니다. 또 마음이 안 가는 사람한테는 손이 안 내밀어지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많이 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또는 차원이 주어집니다. 차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습과 삶도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을 많이들 보시죠. 거기에서 연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진짜처럼 하죠. 진짜로 잘하죠. 역을 맡아 가지고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짜처럼 잘하는데, 우리도 진짜처럼 살고 있던 애입니다. 텔레비전처럼 그렇게 자기의 차원에 따라서 삶도 주어졌고

모습도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살아야지 거기서 빼고 끼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팔자 운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자유자재권을 갖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왕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계단 없는 계단을 밟아서 차원의 급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오는 갑자기 어린애를 낳아서 "으앙" 하고 우는 거를 말하는 것이고, 자라기 위해서 바깥에 나와서 세상을 살면서 배우는 것을 바로 점수라고 이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텔레비전처럼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텔레비전만 그냥 아무 역이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로 맡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진짜로 죽는 역, 또는 아주 하(下)의 사람의 역, 강도 역, 사기 역, 그런 역을 맡아서 나가려면 아마 안 나갈 겁니다. 죽는 역은 더군다나. 그렇죠? 진짜로 죽는다면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들이 진짜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역을 맡아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은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 뇌라. 선장이 있는데 선장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 선장한테 맡기고 뇌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는 것을 다 거기 났을 때 그것이 일차적인 보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보림이 돼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락도 같은 데 뭐, 깊은 산속 같은 데, 걸어가다가 큰 돌이 서 있으면 '아 참, 저 돌 잘생겼다.' 하고 쳐다볼 수도 있겠죠? 또 그런 곳이 아니라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든지, 작든지 크든지 말입니다. 비실비실하고 비틀어지고 뿌리를 박지 못한 나무 한 그루도 그렇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나무들이나 돌이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잡아 달라고 한 예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공부의 단계니까. 나무들이나 돌이나 어떠한 거든지 손을 잡아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엄연히 손 없는 손이 내민 겁니다. 손 없는 손이 나에게 손 없는 손으로 '잡아 다오.' 한 겁니다. 그러면 잡아 주는 순간 돌아닌게 그냥 하나가 돼 버리고, 하나

가 되었다가 또 돌아 되고, 이렇게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없는 손을 건져 줄 때는 없는 손에다 넣으면 손이 돌아닌게 되고 형체가 없으니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돌아닌 공부의 실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를,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시키고 형성시킨 자기 자신과 통했던 애입니다. 통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나무로 통해 가지고, 돌로 통하든지 해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손 좀 잡아 다오.' 하는 겁니다. 돌아닌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도저히 무(無)의 세계의 법도를 모르고, 무의 세계의 공법을 모르고, 무의 세계의 가고 올이 없는 도리를 모른다 애입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가 없다는 애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벌써 싹이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싹이 터서 그 싹은, 예를 들어서 그 나무까지, 묵신하고 돌아닌게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내 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다 합일이 됐다는 얘기고요. 조복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의 도리로, 이것을 손 없는 도리로, 손이 있던 없든 그대로 돌아닌게 건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배우는 도리입니다. 그게 두 번째 보림할 수 있는 도리를 배우고 가는, 즉 말하자면 무의 공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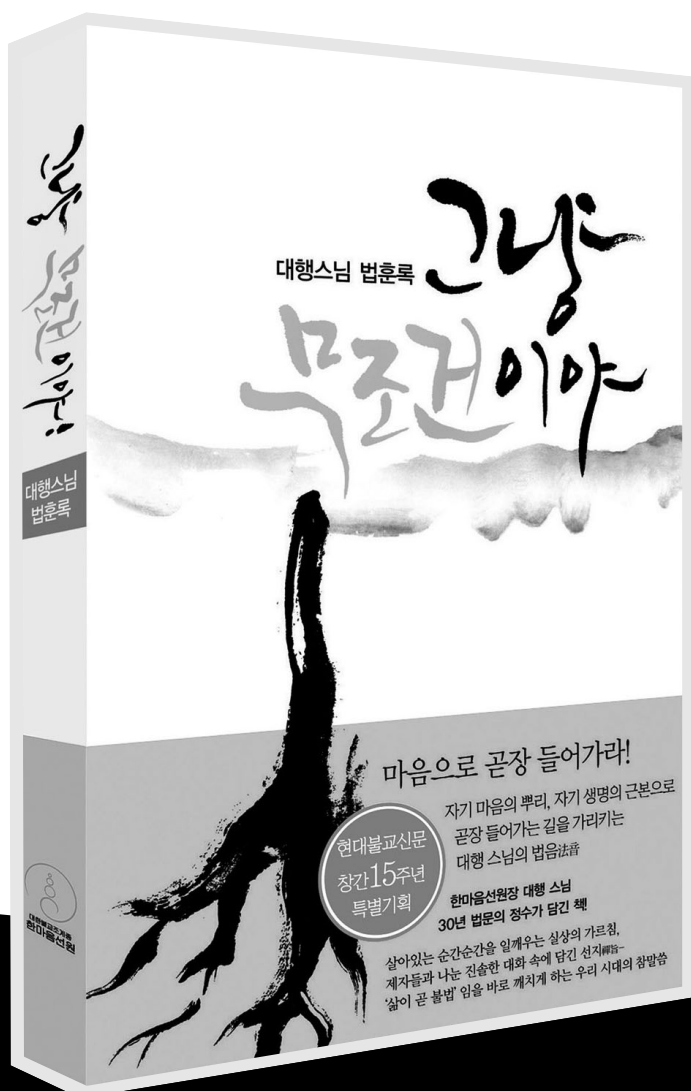
부처님을 숭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질문 스님께서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불가보다는 생활 속에서 선(禪)을 실천수행 하라는 뜻으로 선법가를 부르도록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래를 할 때면 부처님을 숭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마치 다른 종교에서 신을 생각하듯이 부처님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밖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과연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답변 아니, 손을 뻗다가 오그리고 오그렸다 펴 줄 알아야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본래 부처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부처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저 형상을 부처로 보지 마시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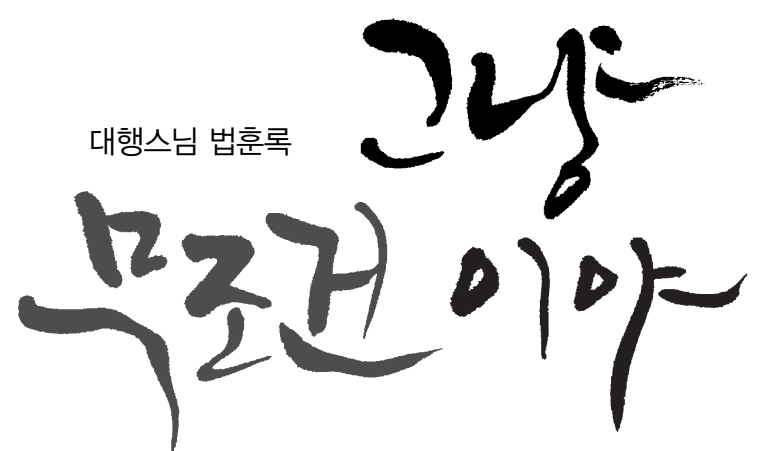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내가 진짜로 사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 되라!

29면에서 계속

고, 그때 그 시절에 난 분도 바로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란 얘기죠. 그런데 바뀌어서 돌아갈 때에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지, 바로 여러분이 부처요, 여러분이 중생이요, 여러분이 지금 그 굴리고 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부처도 생각나고 조상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아내도 생각나고, 자식도 생각나고 친구도 생각나고 그냥 시시때때로 바뀌 가면서 생각이 나지 어찌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 한 군데서 그것도 생각이 나는 거지 여러 군데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음 속에서,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또는 하치 않은 생각이 바뀌지는 겁니다. 바뀌지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한군데서 나오니까, 그것도 부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개의치 마십시오.

병원에 가야 하는지

질문 일체를 주인공에 들고 내는 것이 제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병고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몸에 어떤 이상이 있더라도 병원에도 가지 않고 수행의 재료로 생각하여 진실하게 믿고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 보이는 의사도 또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생각을 맡이예요, 병원을 가든지 약국엘 가든지 자기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자기가 있으니까 아픈 것도 있는 거지 자기가 없으면 아픈 것도 없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자기 주인공 그 자체, 자기 영혼의 근본이 거길 가게 하는 거죠.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가요. 허허허... 그래서 남의 손을 빌려요. 내 손으로 할 거라면 내 손으로 하고 저 손을 빌려야 될 거라면 저 손을 빌리고, 이게 마음대로 자유자재권을 거기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게 받을 때 '술 먹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죠? 그런 걸 나는 중간에다 놓고 '술을 먹되 남을 괴롭히지 말고 망주로 먹지 마라.' 이랬죠. 하여튼 뭐든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 그러니까 뭐든지 나한테 맞게 먹으면 탈이 하나도 안 나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요, 그냥 형제지간이나 또는 친구지간이나 말을 좋게 해 줘야 서로 의리가 나빠지지 않는데 거짓말하지 말란다고 그냥 곧이곧대로, 이쪽에서 욕했다고 그대로 얘기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되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융통성이거든요, 융통성. 그러니까 그런 거짓

말을 했어도 거짓말이 아니 되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해라.' 이럴 수도 없고, 이게 엉겨죽음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짓말해도 아니 되고 아니 해도 아니 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알아서 융통성 있고 지혜롭게 해 나가라. 이게 그대로 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융통성 있게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아, 내 한마음이 저기까지 미치지구나. 보이지 않는 한마음이 철나에 들고 나면서 남의 손을 빌리게 해 주는구나. 그리고 걸로는 내 주인공의 손을, 주인공이 이렇게 남의 손을 빌리게 해 줬으니 그 수고한 걸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건 여기서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 감사하고...' 이런 거죠. 매사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뽕치산으로 불들렸는데 형사들이 말이에요, 한 다섯 사람쯤 됐어요. 그런데 나를 붙잡아다가 함바집 같은 산골집의 각각 따로 있는 방 중의 하나에다 넣어 놔요. 그런데 방에 갇혀서 얼마 있더니

이든지 남한테 떠넘기지 말라 이겁니다. 남한테 물씬 맛있다 하더라도 '어허, 저 몸을 시켜 가지고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게 했으니 내 얼마나 저 사람을 수고를 하게 했다.' 하고, 하하하... 아이, 정말이예요. '수고를 하게 했다.' 하고 외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몸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게 돼 버리죠. 죽은 세상으로 다 연결이 돼서 다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육식 생활이 계를 파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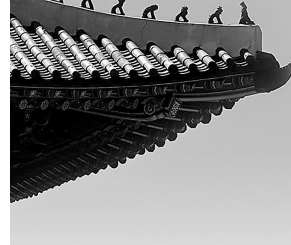
질문 부처님이 설하신 게 가운데 불살생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 것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육식을 먹으면서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그러니까. 육식 생활을 함께 잊어서 늘 그 불살생계에 걸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연하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죠. "손님들이 와서 닭 30마리를 잡아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에게 소고기 한 점이 걸리는 것이 오백 년, 천 년 만에 한번 인연이 될까 말까 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백 년도 일초일초도 오백 년이지, 오백 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초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가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봐도 그 소모두를 내 마음 안에 넣으면 내가 되고 내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소가 되고, 소가 돼서 소무명을 벗기면 그대로 인도환생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사람들은 연속적으로 하(下)의 동물을 먹고 그 하의 무명을 벗기고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생한다고 그것을 넘기지 못해서야 어찌 부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며 그 뜻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살생을 한 바도 없고 안 한 바도 없는 그 가운데 도리를 알 것 같으면 아주 무주상 보시죠.

윤회가 교리가 아닌 사실인지요

질문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세상에 태어났다 죽으면 그것으로 그만인 걸로 알고 있



순한 양처럼 되는 마음도 놓고 악하게 나오는 마음도 놓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마음으로 승응한다. 행복을 받는다.

"이제 나가자."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 주인이, 내 자부처가 "나가야지. 나가지 않겠니?" 그러면서 "저것 좀 들어봐. 몸 좀 들어봐." 해서 딱 드니까 문은 열려 있는데 이쪽에 왜, 설주 않아요? 그게 속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문 잠가 놓은 대로 이렇게 쫓겨 놓고 나왔죠. 나와 보니까 그 다섯 사람이 다 책상이다 꼬라박고 자는 거예요. 하하하... 그런데 건빵도 먹다가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그 건빵을 또..., 하하하...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 뭘, 답을 데나 있어요? 거기 또 손수건이 하나 있길래 손수건에다 싸서 들고 나왔죠.

나올 때 웃으면서 나왔어요. 왜냐? 고문을 한 것도 주인공이 저 사람을 시켜서 채찍질을 한 거고 그러니까 밍지가 없어요, 모두가 아프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가게 하는 것도, 나오게 하는 것도,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것도 모두 거기구나.' 그리고 '아하, 이렇게 죄 없이 맞은 그 아픔은 금방 낫는다.' 했어요. 상처가 생겼는데도 금방 나아요. 그러니까 그 모두를 남한테 떠넘기지 말라 이겁니다. 좋은 일든지 나쁜 일

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으러 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30마리를 잡아서 서른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하고, 민약에 하지 말라고 우긴다면 집안에 큰 싸움이 날 테니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습니다. 거기를 살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백지장 하나를 넘지 못해서 모르니 살생이 될 것이고, 백지장을 뚫은 사람은 그것이 살생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생각을 이렇게 해라. 닭의 삶은 내 살고, 닭의 생명도 내 생명이고, 닭의 마음은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 닭의 삶은 약으로 될 것이고 닭 30마리가 그냥 할랑 네가 돼 버리고 만다. 그러니 30개를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30개를 꺼내도 줄지 않는 도리니 거기다가 모든 거를 맡기고 그냥 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와서 하는 소리가 "어렵잖아 꿈을 꾸니까 닭발이 전부 한데 묶여서 천상으로 올라가요." 자기와 그 닭들이 들어오니까 꿈 그냥 자기 몸뚱이로 들어오리나 자기 천상으로 올라가려합니다. 그런 왜? 그 도리가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처럼 기계 문명이 발달하여 편리한 세상을 향락적인 삶으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와 업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윤회의 가르침이 부처님 말씀으로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인지요?

답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느낌이 문제지요. 누구나 진화하고 윤회하는 건데 그건 하루 24시간 동안만 잘 살펴봐도 알 수 있잖습니까. 찰나찰나에 자동적으로 변해 들어가는 현생의 삶 또한 윤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죽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모두들 죽는 걸 뉘어놓고 깜깜한 무(無)로만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죽는다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요. 또 살면서 다치는 모든 어려운 일도 자기가 업보를 지어서만이 아니라 자기를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을 좀 돌려 보세요. 그러면 윤회에 말하는 게 아니라 윤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회가 곧 진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냥 물질 분위로만 나가니까 거들거들 다시 태어나야 되고, 거들거들 무리를 지

어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서야 축생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아주 하치의 중생도 되고들 그러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남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남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여 막 죽이고 그러는 생명의 수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나오는 것을 자기가 지금 가다듬어서 자재할 줄 모른다면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회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악하게 했으면 악하게 받고, 선하게 지었으면 선하게 받고... 이렇게 그냥 금방금방 돌아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시간 내에 받느냐 열 시간 내에 받느냐 일 년 후에 받느냐 천 년 후에 받느냐 이게 다를 뿐이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를 떠나라.' 하는 걸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냥 자유자재하게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태어나고 싶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고 그러지, 그 속에서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깁니다.

부처는 자유인이고 중생은 노예예요. 지금도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긴 했어도 부처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부처로는 낳는데 인연 따라서 온 업은 어떡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전에 살던 습의 인연에 의해서 자꾸 생각이 나게 되죠. 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때에 따라서 아주 순한 양처럼 됐다가도 금방 악하게 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모든 걸 지금 놓으라는 얘깁니다.

순한 양처럼 되는 마음도 놓고 악하게 나오는 마음도 놓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마음으로 승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받는다는 얘기도, 그러질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물질 분위로만 자꾸 나가 보니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윤회도, 뭐 뭐 무엇이 윤회나 업보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가 되려면 부처가 되는 거고, 중생이 되는 것도 자기가 되는 거고 그래요. 중생이 되어 거듭거듭 새로 태어나는 것도 다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반면에 우리가 윤회의 원리를 깨달아 자재권을 갖는다면, 영체로서 수십만 명을 내보낼 수도 있고 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예전에는 육신으로 다니면서 불국토를 지킨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불국토를 지키려면 영체 아니고는 못합니다. 사람의 눈에만 띄었다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깨닫기만 하면 윤회에도 끄달리지 않고 마음대로 일체를 포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부하라는 것입니다.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손승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도	11일 출발일: 2월 16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10월 20일
스리랑카	8일 출발일: 11월 28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기산 6일 출발일: 10월 31일, 11월 21일
미얀마	6일 앙곤/바간/만달레이/헤호 출발일: 12월 5일, 12월 12일	요금문의 (미얀마) 앙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7일 출발일: 12월 2일, 12월 30일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향시 출발

선불 선량의 나라 미얀마

- 앙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앙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앙곤/바간/만달레이/헤호/벤티야 7일
- 앙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향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산/향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리크루즈
- 태향산/천계산/오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기르-룸비나-스라바스티-산기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일루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미탈레-캔디-콜롬보-룸비나-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기르-스라바스티-룸비나-카트만두-나기르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리싸-양드록초-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리싸-장체-시가체-리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피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니카-팀푸-피로-카투만두-나기르

동티벳 9일
성도-문천-미열링-통달(오명불학원)-백목(아침스)-간당-성도

마하연이 특별함

-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가치없는 상품가격)
-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펙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울업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